

[로스쿨 합격기]

## 로스쿨, 그 새로운 출발점에서

### 한 보 라

- 1988년 6월 생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졸업(2007년)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2011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 I. 들어가며

작년 2월.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무작정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한 그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덧 꿈에 그리던 로스쿨에 입학한지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사전지식이나 정보도 없이 홀로 막막하던 그 때의 제 모습을 떠올리며 제 글이 로스쿨 예비 4기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저는 확실한 팁이나 요령, 방법론은 모르기에 그저 지난 1년간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듯 풀어쓰고 싶습니다.

‘나는 왜 로스쿨에 진학하려고 하는가?’ 제가 로스쿨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초반에 가장 스스로에게 자주했던 질문입니다. 저는 로스쿨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스스로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불안감과 심적 흔들림 때문에 제대로 된 입시준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스쿨 입시는 정말이지 지루하고 견디기 힘들

만큼 깁니다. 힘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왜 로스쿨에 가려고 하는지 제대로 떠올릴 수 있어야만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여름방학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자기소개서 작성 기간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순간 포기를 생각하며 다른 진로를 찾아 두리번거리곤 했습니다. 결국 로스쿨이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일찍 스스로 확신을 가졌다면 더욱 제대로 로스쿨 입시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년도 로스쿨 입시를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루라도 일찍 이 질문의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II. 학점, 학교생활 병행

로스쿨 입시요소는 학점, 공인영어성적, 리트, 자기소개서, 면접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점과 입시와 학교생활의 병행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 1. 학점

학점은 사실 4년간 학부생활의 결정체입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학점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좋은 학점을 쌓아왔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로스쿨 진학을 생각한 그 시점부터라도 최대한 학점을 올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학점이라는 요소가 공인영어성적이나 리트성적처럼 영향이 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좋은 학점은 그 학생의 성실도와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경력과 같은 다른 사회경력이 없는 졸업예정자 지원자의 경우에는 학점이 좋다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비법학전 공이기에 면접 시 교수님들께서 입학 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의문을 보이셨을 때 높은 학점을 근거로 어필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점부분에서 부족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채울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다른 부분에서 채우면 된다고 봅니다.

### 2. 학교생활과의 병행

저는 일명 스트레이트 졸업으로 전공, 이중전공, 교직이수 등을 마치고 바로 로스쿨 진학을 하려 생각했기에 휴학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수해야 할 학

점이나 실습, 졸업요건 때문에 학기 중에는 많은 시간이 나지 않을 것임을 입시 준비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로스쿨 입시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 휴학을 하지 않은 졸업예정자 지원자들에게 참고가 되시라고 이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저의 준비기간 1년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각 세부사항은 아래에 각 항목에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 2월부터 한 달간 추리논증 학원 강의를 들으며 입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리트가 그리 많은 공부시간이 필요한 시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기에 나름대로 이것이 남들에 비해서 늦지 않은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3월에 개강을 하고나니 학원 다닐 시간을 할애하기 힘들었고 4월에는 중간고사, 5월은 한 달간의 교생실습, 6월의 기말고사와 함께 4학년 1학기가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 내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의 리트 스터디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조차도 정해진 문제집 분량만을 겨우겨우 풀어가는데 다였고 5월 한 달은 아예 참여할 수 없었기에 리트는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문제를 풀고 본격적인 공부는 여름방학 때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은 리트공부와 공인영어성적 만들기에 전부를 온전히 투자했고 8월 리트를 본 후 4학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위해 9월 말부터 학교 내의 면접스터디에 새로이 참여하여 11월 중순 가,나 군 면접 직전까지 꾸준히 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1학기에 비해서는 여유로운 시간배분이 가능했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학교생활과 병행하는 것이 스터디의 수월성도 있고 좋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마지막 공인영어성적 시험의 기회, 입시 막바지라는 압박감과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는 1학기 때보다 더욱 힘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 III. 공인영어성적, 제2외국어 성적

공인영어성적은 반드시 리트 준비 전부터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공인영어성적은 마지막까지 저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로스쿨 합격자나 지원자들이 높은 공인영어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익 같은 경우에는 900점은 기본으로 갖추고 900중후반대로 점수를 올리기 위해 계속 시험을 보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 역시 토익으로 영어성적을 준비했기에 이 부분은 토익에 국한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영어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이후 전공 언어 외에 영어는 손도 댄 적이 없었기에 토익 800초반의 점수대로 시작을 해서 2010년 1월에 겨우 800후

반대 점수를 얻고는 몇 달에 걸친 연속된 시험에 지쳐 단일한 마음으로 시험응시를 멈췄었습니다. 제가 지원하고자 한 자교 한국외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입시요강에 토익 900점이면 공인영어성적을 만점처리하고, 일정 점수 이상의 제2외국어점수면 역시 공인영어부분 성적으로 대체하여 만점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었기에 제가 가진 중국어 자격증인 공인 HSK성적을 내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별 반영비율들을 살펴보고 이곳저곳 정보를 알아보면서 문득, 토익 900점에 겨우 몇 점 모자라는데 단지 나의 노력부족으로 여기서 멈춘다면 설사 외대에서 외국어는 만점처리를 받더라도 나는 단순한 제2외국어 특기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군, 나군 두 개의 대학에 지원해야하기에 외대 로스쿨 외에 곳에 지원하려면 토익900점을 넘기는 것은 필수라고 느꼈습니다. 이 생각을 리트시험이 다가오던 여름방학에서야 하게 된 것이 지금 생각해도 가장 부끄럽고 스스로를 고생시킨 일입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결국 리트 직전과 직후인 7,8,9월 토익시험까지도 연속해서 보았고 극적으로 서류접수 마감일자 전 제출 가능한 마지막 9월 토익에서 900점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제2외국어 성적을 가지고 계신 지원자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제2외국어 성적은 입시에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본적인 공인영어점수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이는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제가 면접에 가서 받은 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군, 나군 학교 모두에서 교수님들은 높은 중국어 점수를 보시고 ‘그럼 영어는 잘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고작 토익 몇 점 차이일 뿐이지만 앞자리 수가 8이냐 9이냐는 매우 큰 인상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만약 이미 900점을 넘기신 분이라면 리트가 가까워 오기 전에 미리 좀 더 준비해서 할 수 있는 한의 최고의 점수를 만들어놓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영어 조금 모자라는 건 리트로 뒤집으면 되지 뭐’, 아직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한 리트점수만 믿기보다는 확실한 공인영어점수를 만들어놓는 것이 합격에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일 것입니다.

#### IV. LEET

리트는 로스쿨 입시 요소 중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로스쿨 입시는 복합적이어서 학점, 영어, 리트 중 어느 하나가 높고 낮다고 해서 어느 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교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 리트점수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리트는 공부를 하

는 만큼 점수가 오르는 시험이 아니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리트 고득점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한 문제풀이를 통해 처음 리트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에 비해 시험 당일 한결 나아진 성적을 얻었기에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영역별로 제가 했던 공부법들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언어이해, 추리논증

리트 공부를 시작하기 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작년 리트 기출문제를 시간을 재어 풀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언어이해나 추리논증 할 것 없이 리트공부를 시작하기 전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와 부족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재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처음 시간을 재어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기출을 풀어보고 채점을 한 뒤 인터넷에서 말하는 소위 인서울 합격권 리트 점수와는 꽤 차이가 나는 점수에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 나올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많은 책을 읽어서 속독에 능하다는 장점이 있었기에 시간조절에 능숙하다는 것을 무기로 포기하지 않고 속독에 꼼꼼한 독해 능력을 더할 수 있도록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항상 문제의 답을 지문에서 찾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문을 읽은 후의 느낌으로 답을 선택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우선 유명한 기본서를 한권 선택해서 문제유형별로 푸는 방법을 차근차근 익히보기로 했습니다. 언어이해의 경우, 저는 가장 처음에 권중철 선생님의 'LEET 언어이해' 문제집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유형별로 분석해놓은 점이 마음에 들어 앞부분은 1학기 초에 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풀었는데, 뒤의 모의고사와 같은 부분은 기출과 거리가 있다고 느껴져서 모의고사는 풀지 않고 그 뒤부터는 PSAT 등 기출문제만으로 대신했습니다. 추리논증의 경우에는 '조호현의 추리논증'이라는 책을 기본서로 보았는데 언어이해는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추리논증은 지난 방학 2월에 한달 학원을 다닌 것 외에 혼자 책만 보는 것은 불안해서 책에 맞추어 동영상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기본서를 한 번 본 후에는 바로 여러 수기 등에서 선배들이 한결같이 꼭 풀어야 하던 M/DEET 기출과 PSAT 기출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년도부터 뒤로 거슬러 올라가며 하루에 최소 한 영역씩은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PSAT의 경우에는 영역이 리트와는 조금 달라서 어떤 부분을 풀어야할지 고민했는데 자료분석을 제외한 언어논리와 상황판단 영역을 모두 풀었습니다. 딱히 언어논리가 언어이해이고 상황판단이 추리논증이라는 식으로 맞아떨어지는 않지만 문제유형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논리 같은 것들이 공통된 것이라는 느낌

이 들었습니다.

참고할 점은 저는 매년 M/DEET이나 PSAT 기출문제를 풀 때에도 시간을 재면서 풀었다는 것입니다. 시간 조절을 하면서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구별하면서 풀어나가는 연습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출문제를 통한 연습을 하는 내내 시간 조절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터디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터디를 하게 되면 문제를 풀어오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풀고 나서 왜 이 문항이 답인지에 대해서 해설만 잠깐 보고 넘어가지 않고 스터디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놀기만 하지 않고 적절히 서로의 입시생활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스터디원과 함께할 수 있다면 스터디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느 정도 기출문제를 푼 뒤인 7월 중순이후 부터는 리트 유형에 감각을 최적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시중의 LEET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리트 시험 시작 시간인 아침 시간에 맞추어 학교의 빈 강의실에서 스터디원들과 매일아침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가까워 올수록 무리하지 않고 일찍 자고 푹 쉬면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컨디션 조절에 힘썼습니다. 이제까지 공부를 해본 경험상 리트는 문제를 푸는 그 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긴 시간동안 집중을 할 수 없고 시험결과 역시 몸 상태에 따라 굉장히 들쭉날쭉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시험전날 일찍부터 잠을 푹 잤고 당일 역시 떨리긴 했지만 컨디션이 매우 좋아 항상 스터디원들과 모의고사를 풀면서 연습할 때 맞는 개수가 늘지 않는다고 걱정했던 것에 비해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2. 논술

논술은 단기간에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막상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논술을 준비하지 못했었습니다. 학원이 학교나 집과는 거리가 멀어 시간이 나지 않기도 했지만 막상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에만 집중하느라 논술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논술은 반영비중이 크지 않은 학교가 많다고들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논술에서는 변별력이 별로 없다고 다들 말하는데, 그것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시간 안에 글자 수를 채우지 못한다던지 남들에 비해 보기에 떨어지는 글을 써낸다면 그만큼 비슷비슷한 글들 사이에서 나만 점수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고 긴 글을 써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분이라면 미리미리

논술을 꼭 준비해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논술은 자신의 의견을 글로 표현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시문을 빠르게 읽고 쟁점을 제대로 파악해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트 한 달 전쯤부터 논술 준비를 하면서 적어도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글을 써내자는 것을 목표로 잡고 논술 참고서를 보면서 모범답안을 분석하며 공부했습니다. 논술의 경우에는 'LEET, 로스쿨 실전논술'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원고지에 리트 논술 기출문제를 시간에 맞추어 써보는 연습을 2,3일에 한번 씩 했습니다. 학원에서 첨삭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의 경우엔 참고서의 모범답안으로도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V. 자기소개서

리트가 끝나고 점수가 발표되면서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지원예정학교와 지원전략에 따른 지원학교를 선택하게 되는데 학교마다 자기소개서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학교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 자체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는 적어도 최소 세 번 정도는 각기 다른 사람의 첨삭과 조언을 얻어 수정되어야 하기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리트가 끝난 후 자신이 꼭 지원하겠다 하는 학교가 정해지면 곧장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보통은 원서접수 기간에 자기소개서도 함께 제출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저는 9월 초 개강을 하자마자 교내 면접스터디에 참여하여 그 스터디에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라 함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도 합격시켜달라는 강한 어필을 하는 서류이기에 스터디원들끼리 서류를 돌려가면서 첨삭을 하기에 민망하고 꺼려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한 주변사람들의 첨삭도 좋지만 나를 전혀 모르는 로스쿨 교수님들의 눈에 나의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보일지를 제3자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한 친구, 부모님, 학교 선배, 스터디원들 등 약 열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각각 첨삭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 첫 버전을 다 돌린 것이 아니라 한명에게 조언을 얻고 첨삭을 얻으면 바로 새롭게 수정을 하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첨삭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첨삭을 받고... 이 과정을 열 번 이상 반복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점은 그렇게 수정을 많이 했는데도 새로운 사람이 읽으면 또 추가 수정할 부분이나 더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발견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자기소개서 수정과정을 겪으면서 지원동기에 대해서는 면접에

서 당장 물어보아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가 확신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공들여 쓰게 되면 면접에서 문제의 질문 외의 개인적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저절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해서 마치 그냥 술술 써질 것처럼 쓰긴 했지만 자기소개서 작성은 매일밤 머리를 싸맨 채 잠 잘 시간마저 없을 만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자신도 아리송한 자신의 장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야만 하는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점, 영어, 리트성적이 확정된 이 순간, 나의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몇 안남은 부분이 자기소개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 VI. 면 접

자기소개서와 함께 원서접수를 마치고 나면 11월 초에 1단계 전형의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발표 후 1주일, 2주일 만에 면접을 바로 보기 때문에 면접 준비는 1단계 전형 발표 훨씬 전인 원서 접수 전부터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앞서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언급했던 교내 면접스터디에 9월부터 참여하여 자기소개서 외에 일주일에 두 번 가량 모여서 면접 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 방식은 정해진 교재의 중요 주제들을 몇 가지 뽑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각자 순서를 정해 돌아가며 실제 면접처럼 다른 스터디원들을 마주하고 대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재는 황남기 'LAWSCHOOL 실전면접'을 사용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하는 스터디원에게 나머지 스터디원들이 추가 질문을 계속하기도 했고 답변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스터디 분위기가 실전 면접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진지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학과 출신의 스터디원들과 비법학과 출신의 스터디원들 구성이 잘 어우러져 서로 윈-윈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스터디를 시작할 때엔 여러 사람들 앞에 앉으면 아는 것도 생각이 나질 않고 말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면접을 앞둔 시점에는 면접 같은 상황에서도 심하게 떨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역시 실전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면접장에 가기 전에 원서제출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는 잊지 않고 다시 읽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면접 진행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보시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상 질문을 작성해서 어느 정도의 키워드는 외우시는 것이 긴장해도 여유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 짧게 한번 해보세요'와 같은 질문은 정말 뻔하디 뻔한 예상 질문이지만 막상 들어가자마자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려면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을 10개 정도 예상해서 미리 준비하고 외워서 들어갔었고 예상했던 질문들을 반 정도는 받았습니다. 심층 면접 주제에 대한 찬반 입장만 잔뜩 생각하다가 막상 이런 간단한 질문에서 허점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려면 역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실 지금에야 당시에 막상 하나도 긴장하지 않은 것처럼 글을 써내려가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나마 덜 떨었다는 것이지 면접 당시에 너무 떨어져 목이 메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면접에서 나올 법한 유명한 주제나 딜레마 문제는 대부분 자신의 입장을 정해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다들 잘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외의 면접 팁을 말하자면 진정성, 간절함을 어필하라는 것입니다. 뽑아달라고 사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진솔한 면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지원 동기 질문이라도 그냥 로스쿨 지원동기를 읊는 지원자보다는 몇 마디만으로도 진솔함이 느껴지고 정말 꼭 이 로스쿨이어야만 하는 구나라는 점이 전달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군 면접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으시는 질문을 받고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멘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엔 너무 긴장해 말을 이어나가기가 힘들기도 했지만 면접이 끝나고 정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결과에 상관없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VII. 마무리하며

앞에서도 말했듯이 로스쿨 입시과정은 매우 깁니다. 그 긴 과정이 끝나고 나서 후회 없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매순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이 벌써 약 네 달 전 일입니다. 발표 며칠 전부터 잠도 잘 오지 않고 발표 바로 전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지쳐 잠들기도 하고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고는 너무 기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로스쿨 입시에 투자했지만 입학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도 가끔 내가 어떤 지점에 서있는 건지 얼떨떨합니다. 저는 로스쿨 입시가 끝나고 나면 끝일 거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는데 로스쿨은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 로스쿨 4기 입시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서서 꿈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글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